

■ 장승과 솟대

장승과 솟대는 너무나 오랜 역사와 세월을 가진 문화입니다. 장승은 예로부터 마을의 초입에서 평화를 지켜왔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솟대는 과거급제를 떠난 집안 남자의 간절한 소식을 기다리는 뜻으로 세워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 문화행사에서 다시 대두되고 있지만 누구하나 그것을 신앙으로 믿는 이가 있는지요? 이것은 이미 하나의 문화입니다. 모태신앙 천주교신자인 저는 그런 의미에서 최초로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즉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라는 말에 주안을 두었던 것입니다.

